

2004 지방재정 세미나

격 려 사

김 홍 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오늘 국토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려는 유서 깊은 항구도시 목포에서 2004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를 개최하게된 것을 시의 적절하고 또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나 각종 학회가 개최하는 지방발전에 관한 세미나는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개최되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분권의 방향과 향후의 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재정여건이 비교적 취약한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현장에서 오늘날 지방재정이 직면한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와 학회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여러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의견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촉진에 큰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도 자치단체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지향하지 아니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10여년 전에 지방자치를 부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방화”와 “지방자치”는 우리의 기대대로 추진되고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방화”와 “건전한 자치실현”의 대 전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높이는 길이며 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시키면서 확충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게된 배경은 지난간 지방자치 10년 동안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일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촉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녀온 기능과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 수단이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확대되는 권한과 확충되는 재정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치권은 확대시키면서 자치단체가 국가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이후의 재정분권의 방향과 향후의 과제”라는 대 주제를 놓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제 개혁방안”,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이라는 각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 이 세미나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의 재정분권 실현에 큰 기틀을 마련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지방재정 전문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자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인이며 수혜자이며 납세자인 시민여러분께서 오늘 지방재정이 당면한 문제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구체적이고도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지원을 해 주는 목포시의 재정현황은 바로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약 4,000억원입니다. 이중 흔히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말하는 일반회계 규모는 2,700억원입니다.

2,700억원 중 자체수입은 850억원(32%)에 불과하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480억원으로서 이것으로는 목포시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680억원)마저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발전이 정체되고 지역경제가 취약하여 지방세수의 세원이 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유념해야할 것은 총 세출예산 2,700억원 중 목포시가 자주적,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겨우 350억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이후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촉진되면 지방재정의 수요는 더욱 증폭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자체 투자재원의 확대는 국가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지방재정을 대변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를 책임지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지방재정의 현장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그 깊은 뜻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좀더 구체적이며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있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여러분 각자의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회를 개최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주신 박준형 전라남도 지사님과 전태홍 목포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포시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한 차원 높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7월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 홍 래